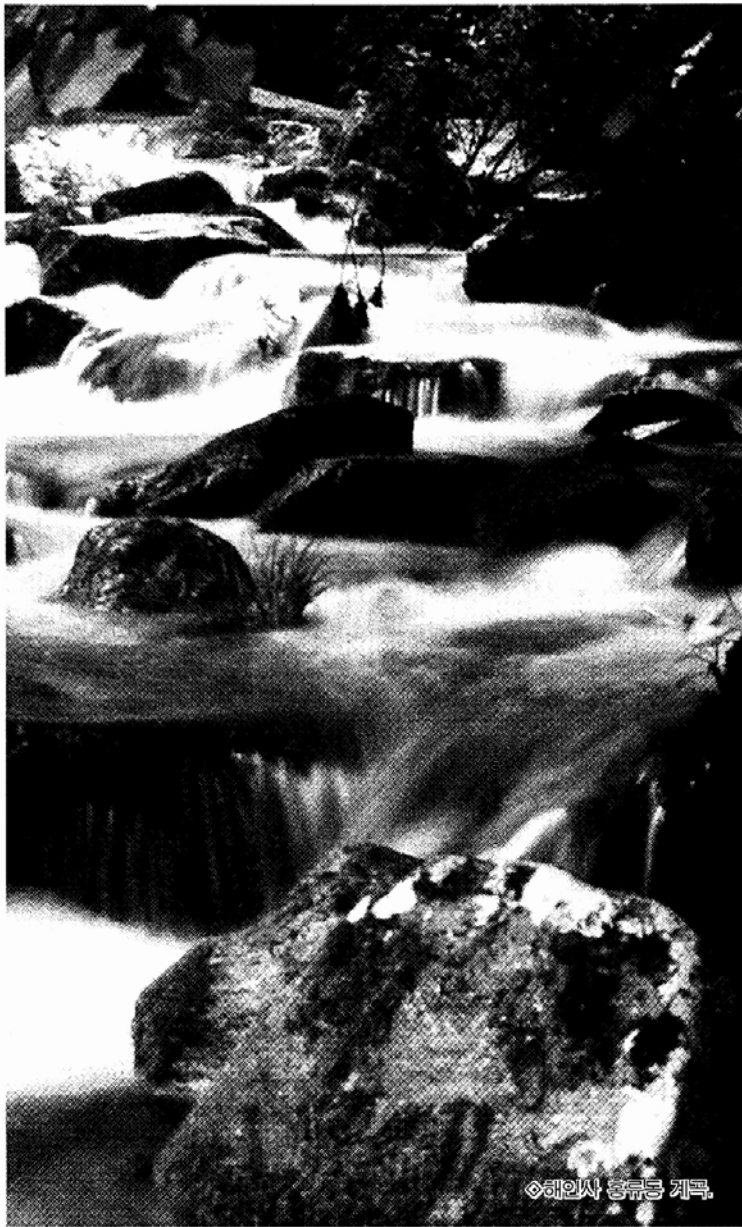


부처님 품에 안긴 계곡을 찾아서

맑은 물 '칼칼'...속진을 씻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이번 여름에는 봄비는 도심 수영장이나 에어콘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끈한 기계 바람에서 벗어나 부처님 품에 안긴 계곡을 찾아 가보자. 깊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시원하게 뿜어 흐르는 물소리와 살랑대는 미풍에 실려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면 더욱 좋으리라. 계곡 주변의 등산로를 가볍게 걸다가, 잠시 흐르는 계곡 물에 발 담그고, 사색하는 여유까지 즐기다 보면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고 느낄 것이다. 특히 주말보다는 주중에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더욱 현명한 여행이 될 것이다.



해인사 홍류동 계곡.

-수타사 계곡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공작산에서 발원해 산봉리를 거쳐 덕치리로 이어 흐르는 수타사 계곡은, 질푸른 활엽수림과 함께 맑고 깨끗한 계곡 물길이 8km 정도 이어진다. 계곡 안에 흰 모래사장이 있는가 하면 씻어 넣어 놓은 듯한 자갈밭 등 아기자기한 계곡의 특징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교통: 홍천→진리 사거리(우회전)→속초리(좌회전)→수타사입구 주차장, 또는 홍천→수타사간 시내버스를 이용.

-구룡사 계곡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국립공원 치악산 아래에 있는 구룡사는 원주의 진산인 치악산 제일의 사찰답게 수백년 묵은 소나무와 각종 아할엽수림이 고찰 특유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차장에서 구룡사에 이르는 계곡과 구룡폭포는 발품을 들이지 않고도 곧장 원시의 세계를 보여줄 만큼 그윽하다.

교통: 영동고속도로 새말IC→삼거리→구룡사 주차장, 또는 원주시-구룡사간 시내버스 이용.

-갑사 계곡

계룡산 갑사 계곡은 한여름에도 가을을 느끼게 할 만큼 시원하다. 갑사 입구 오리숲에서 금잔디고개에 이르는 약 3km의 계곡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갑사에서 청류계곡을 약 0.6km 오르면 용문폭포가 있고, 용문폭포에서 약 0.6km를 계속 오르면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를 모셨다는 천진보탑과 신흥암이 있다.

교통: 호남고속도로 유성IC→공주방면 32번 국도→미암교→갑사 주차장, 또는 공주-갑사간, 또는 대전-갑사간 시내버스 이용.

-동학사 계곡

계룡산 화바위 앞에서 관음봉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동학사 계곡은, 언제나 푸른 숲에 갇혀 맑은 물소리와 청량한 새소리를 들려준다. 계곡입구의 울음처럼한 숲속을 신선처럼 걸노라면 비구니 강원이 있는 동학사에 이르고, 1.5km쯤 거슬러 오르면 산수의 조화미를 자랑하는 은선폭포에 이른다.

교통: 호남고속도로 유성IC→32번 국도→박정자삼거리→동학사 입구, 또는 대전-동학사간 버스 이용.

-대원사 계곡

대원사를 감싸안을 듯 휘돌아 흐르는 대원사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리산 주변 계곡 중에서 다소 한가한 편이다. 이 계곡에는 폭포의 낙수로 무지개를 친다고 해서 무재치기폭포가 있는데 차가운 폭포수가 그리 시원할 수 없다. 주변의 남명조식의 산천제나 단속사지와 같은 유적지도 둘러볼 만하다.

교통: 88고속도로 함양IC→진주방면→산청→단성교→덕산→명사삼거리→대원사, 또는 산청-대원사간 버스 이용.

-내원사 계곡

한반도의 남녘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동·남쪽으로 10여km 떨어진 내원사 계곡은 시천면 중산리 계곡과 대원사 계곡의 중간 지점으로 여름 피서철에는 찾아 볼만한 곳이다.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원효대사가 이곳에 이르러, 89개 암자를 건립하고 화엄경을 설법하여 천명대중을 모두 득도케 한 곳이라 하여 이곳의 산 이름을 천성산이라 한다.

교통: 통도사 IC(양산 방면)→용연 삼거리(35번 국도, 군도 교차로)→내원사, 또는 진주-내원사·버스 30분 간격으로 운행.

-법주사 선유동 계곡

충북 보은군 속리산은 법주사를 중심으로 주봉인 천황봉(1058m)을 비롯하여 입석대, 문장대 등 1,000m가 넘는 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법주사의 문화재, 천연기념물과 함께 이 지역의 선유동 계곡은 맑고 시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교통: 보은 25번 국도→대야리에서 좌회전(37번 국도)→속리산 국립공원, 또는 보은-속리산간 직행버스 이용.

-해인사 홍류동 계곡

가야산 해인사 입구에 자리한 홍류동 계곡은 주위의 송림 사이로 흐르는 물이 기암괴석에 부딪치는 소리가 신라의 대문호 고운 최치원선생의 귀를 먹게 했다 하여 더욱 유명한 곳이다. 주변의 단풍이 흐르는 물에 붉게 그림자진다 하여 홍류라 이름하였다고 전해진다.

교통: 대구서부→99고속도로→해인사 IC→가야→홍류동 계곡, 또는 대구 서부터미널-해인사간 버스 이용.

-희방사 계곡

희방계곡의 희방폭포 바로 옆의 깎아지른 돌벼랑을 따라 올라 가노라면 깊숙한 골짜기에 소백산 희방사란 절이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두운조사가 창건한 희방사는 소백산의 병풍같은 산 허리에 절제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이곳에는 폭포를 끼고 오르는데 철로 만든 다리가 있어, 그곳을 오르다 보면 무더운 여름을 잊게 하는 청량감을 만끽하게 된다.

교통: 서울 동서울터미널-영주 행 직행버스, 또는 풍기-희방사간 30분 간격 버스 이용.

-서산 미애삼존불과 용현계곡

국보 제84호인 서산 미애삼존불이 있는 용현계곡은 맑고 깨끗한 물과 함께 천연 삼림욕장으로도 인기가 높다. 또 미애삼존불에서 약 1km의 거리에 사적 제316호 보원사가 있는데, 고려초에 창건한 사찰로서 고승 법인국사가 수도하였다 한다.

교통: 천안-예산→덕산→45번 국도→해미→647번 지방도→8번 군도→용현리, 또는 천안-서산간 직행버스 이용.

-백련사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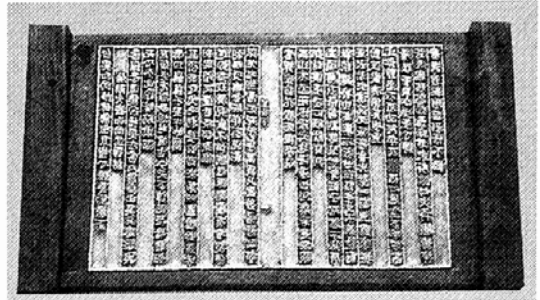
덕유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계곡이 바로 설천면 나재 통문에서 백련사에 이르는 무주구천동 계곡이다. 구천동 계곡의 최상류에 위치한 백련사 계곡을 중심으로 안심대, 구천폭포, 연화폭 등 절경이 이어진다.

교통: 무주읍내-구천동간 버스 이용.

-내장사 계곡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내장사에도 시원한 계곡 물이 흐른다. 내장사 우측은 원적암에서 유래된 원적계곡이, 좌측에는 금선폭포에서부터 흐르는 금선계곡이 있다.

교통: 정음-내장사간 직행버스 이용.



◇한국형 오페라를 지향하는 오페라 '직지'는 박범훈교수(중영대)가 작곡을 맡았다. 사진은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본 모형.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에 담긴 민족정신과 문화

창작오페라 '직지'

9월-서울, 11월-청주 공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발상지인 청주 흥덕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창작 오페라

'직지'가 공연된다.

오페라직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환)는 11월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오페라 '직지' 제작발표회를 갖고, 오는 9월 22일~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9일~12일에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오페라 '직지'는 고려 말기를 배경으로 백운화상의 제자였던 묘덕과 정안군, 그의 아들 허숙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와 원나라의 지배하에서 자주 국가의 위상을 세우고, 백운화상의 뜻을 받들어 금속활자를 고안해 직지심체요절을 탄생시키는 고려인들의 새 문화 창조 의지를 극적으로 연출할 예정이다. 연출은 중앙음악연구소 대표 정갑근 씨가 맡았으며, 주인공 묘덕 역은 성악가 김유성씨, 백운 화상 역은 상명대학 음악과 김명지교수, 허숙 역은 단국대 음악과 장유상 교수가 열연하게 된다.

이번 오페라 '직지'의 작곡을 맡은 박범훈 교수는 "오페라가 당시 직지심체요절의 제작동기와 시대적 상황을 오페라로 형상화하고 있는 만큼 그 음악적 내용 역시 한국적이면서 세계적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면서 "우리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혼성 편성에 우리 고유의 창법과 양악창법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초의 한국적 오페라 양식을 창출해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ejee@buddhopia.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2000년 부채그림전'

불교적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 생활 주변의 모습을 부채에 담은 '2000년 신바람 162인 부채그림전'이 21일~8월 20일까지 대구 대림당 회관에서 전시된다.

현대불교신문 대구 경북지사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강행복, 정비파, 최영조 등 불자 화가들이 참가했다. (053)983-9222

김남희씨 윤회전

93년부터 꾸준히 개인전을 열고 있는 화가 김남희씨가 제6회 개인전 '인도기행-윤회'를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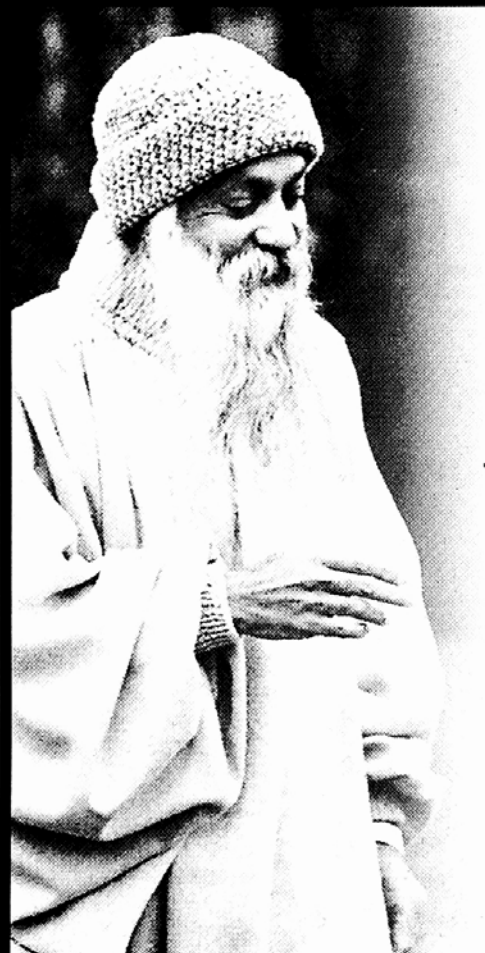
~25일까지 서울 인사갤러리에

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화가가 인도를 기행하며,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화폭에 담았다. '갯지조강의 일출', '툰미니동산에서', '사라상수 나무아래-열반' 등 20여 작품이 선보인다. (02)735-2655

김창배씨 수묵전

수묵 담채화로 그린 화가 김창배씨의 '붓가는 대로 마음가는 대로'전이 8월31일까지 강원도 진부령 미술관에서 열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부령을 지나는 불자들이면 한번쯤 둘러볼 만한 이번 전시에는 수행자의 다양한 일상을 담은 수묵담채와 달마도, 동경화 등이 전시된다. (033)681-3679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The Royal Song of Saraha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I
오소 라즈니쉬 강의 이경옥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명상은 삶속에 존재한다. 그대가 누구이건 그냥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왕을 위한 사리하의 노래, 이 40편의 노래들이 그대 가슴에 40송이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한다. 그대를 꽃 피울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탄트라 메시지가!

India My Love
내 사랑 인디아
오소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8,000원

빛나는 우화들은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라. 사랑으로!
인도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이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오소 라즈니쉬가 보내온 초대장,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와 하나가 되고, 숨어 있는 꽃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

Tantra Vision
탄트라 秘典 I·II·III·IV
오소 라즈니쉬 강의 이연화 옮김 전4권 각권 값 10,000원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2가지 수행법!
이 책의 원전은 (비크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로, 옛 선사들의 지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명상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천 년전 시바가 그의 연인 데비에게 전수한 것들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 01. 탄트라 秘典 I 05. 법구경 I 09. 탄트라 대양의 햇살을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7. 오직 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I 조주 21. 내 사랑 인디아
- 02. 탄트라 秘典 II 06. 법구경 II 10. 십두도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8. 명 빈 가슴을 넘어서 I 남진 22. 소중한 비밀 I 까비르 강론
- 03. 탄트라 秘典 III 07. 금강경 11. 신심명 15. 轉 빈 거울에 담긴 노래 I 마조 19. 법의 연꽃 I 이규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 04. 탄트라 秘典 IV 08. 반야심경 12. 화안 연꽃(대사 강연) 16. 마음을 버려라 I 일제 20. 轉의 최고봉 I 백경과 대주 24. 서양의 붓다 I 헤라클레이토스 강론